

# 신읍사거리~천주교간 도로 연말 개통

## 공정율 70%, 2차 구간 2009년도 추진계획



포천시내의 민선적인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 중인 포천 도시계획도로 신읍사거리~천주교간 구간 전체(430m)가 올해 연말 개통될 것으로 보인다.

포천시내의 민선적인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 중인 포천 도시계획도로 신읍사거리~천주교간 구간 전체(430m)가 올해 연말 개통될 것으로 보인다.

정율을 보이고 있어 6월 말까지 완공하고, 2차 사업구간 130m는 사업비 부족으로 2009년도에 38억원을 확보해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와 도시미관의 개선을 위해 나머지 2차 사업구간에 대해서도 앞당겨 추진하기로 하고 38억원을

추경예산으로 긴급 편성해 올 연말 완전 개통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이 완공되면 포천 도심에서 외곽순환도로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고 교통소통과 가로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 지방세 납부 24시간 가능

지방세납부 지정계좌서비스 호응 커  
포천시(시장권한대행 심재인)에서는 4월 1일부터 지방세를 24시간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납부 지정계좌서비스를 실시해 납세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1일 시행해 4월 30일까지 21일간(사실상 근무일수)의 이용실적은 총 412명/893건/2억62백만원 상당(채납분 869건/172,469천원, 자납분 24건/89,531천원)으로서 1일 평균 43건/12,476천원을 지정계좌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제도가 시행 초기임에도 이처럼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각종 홍보매체(신문보도, 유선방송, 홈페이지 홍보, 독촉고지서 표기)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방세를 자진납부하겠다는 납세자들의 의지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특히, 최근 보이 스피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납세자 핸드폰에 '지방세납부 지정계좌 000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표기하는 등 타 시·군과 차별화된 전략을 시행한 것도 납세자들의 공감을 산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포천시 소재 (주)00식품이 07년 결산분 법인세할 주민세 21만3,470원을 근무시간 내에 신고하지 못해 자진신고납부 미이행에 따른 가산금 42만8,69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으나 이 제도를 이용해 납부함으로써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고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었다.

하승환 기자 forme64@paran.com

### 탐방 우리지역 사업소 163

### 사리원

## 잃어버린 입맛을 찾아주는 고기 집



대표 장애옥

정겨운 맛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 전통 재래식 방법을 이용해 만든 된장?쌈장?고추장?간장 등, 그리고 인근 밭에서 직접 재배한 신선한 무공해 야채와 기타 음식재료로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건강과 잃어버린 맛을 제공하고 있는 사리원 고기 집(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295번지 대표:장애옥).

우리지역의 명문 골프클럽인 아도니스 맞은편에서 창수 방향으로 20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사리원 고기 집은 2000년 2월에 개업해 정직한 재료사용과 타고난 손맛을 자랑하며 서울?경기

지라는 각종 야채들은 그 날에 필요한 양을 재취해 고객의 식단에 제공하면서 신선함을 더해 주고 있다.

장 대표는 "창수에서 생산되고 있는 대풍콩을 해마다 25가마씩 구입해 직접 만든 명품된장, 이 밖에도 포천 고춧가루와 마늘을 듬뿍 넣어 만든 명품마늘고추장, 된장과 고추장, 디프리, 새우, 굵은 밀치, 표고버섯, 무, 양파 등을 가마솥에 끓여 만든 명품쌈장 등 장류를 밑반찬과 음식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직접 재배해 지난해 소금에 염장했던 양념쌈, 사리원 된장에 바른 고추, 품질 좋은 포천 고춧가루와 사리원에서 직접 재배한 무공해 유기질배추, 각종 양념, 곰소항에서 직송된 갖가지 담야 썬송에서 숙성시킨 묵은 김치, 묵은 감치 볶음, 가을에 열린 무 시래기를 특별한 육수와 된장에 끓여 구수한 맛을 내는 된장시래기찌개 등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고객들에게 제공·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좋은 재료 사용과 특유의 손맛이 음식 맛을 내는 비결이라며 메인 메뉴인 생고기는 고객들이 고기 맛을 알고 찾아오는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고기류를 먹고 난 다음 고기 구운 무쇠불판에 명품된장으로 양념한 시래기국을 끓여 먹는 맛은 언제 고기를 먹었는지 알지 못할 정

## 고객의 식단에 언제나 신선함이 가득 양질의 재료 사용과 손맛이 맛의 비결

및 기타지역 등에서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건강까지 생각한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점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이곳에서 8년째 사리원 고기 집을 운영하고 있는 장 대표는 고향은 서울이지만 86년도에 포천에 정착해 음식에 관련된 업종 등을 운영하며 제2의 고향처럼 20여 년 넘게 이곳에서 생활해 오고 있다.

사리원 고기 집 뒤편에 자리잡고 있는 드넓은 밭에 유독 눈길을 끄는 것은 약 120여 개가 넘는 할아리다. 수많은 할아리 속에는 전통재래식으로 담근 된장·쌈장·고추장·간장 등이 정성스럽게 담겨져 있으며 먹거리로 제공될 각종 밑반찬의 재료로 사용해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2동의 비닐하우스와 밭에서

도로 느끼한 맛은 전혀 없고 개운한 맛이 입안까지 남아있는 정도로 뒷맛이 깔끔해서 모든 고객들이 선호하고 즐겨 찾는 메뉴다.

사리원 고기 집 주메뉴인 생고기 (150g)는 2만 9천원을 받고 있으며 시래기 시골밥상은 7천원, 육회(250g) 3만원, 제육볶음(250g) 1만 5천원으로 비교적 간단하지만 정성을 다한 메뉴를 고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단골 고객이 고객의 90% 정도라고 한다.

사리원 고기 집은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으며 평일은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영업을 하고 있으며 토·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예약문의 Tel.031)531-2100 HP.010)6449-1238

정병만 기자 jpk61@paran.com



우리지역의 명문 골프클럽인 아도니스 맞은편에서 창수 방향으로 20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사리원 고기 집.

### 행복한 보험이야기 30

### 웬수?

'차마 제 주위에 아는 사람들에게겐 부끄러워 말 할 수 없었던 한 달여 동안의 내 가슴 속의 멍을 털어 보고자 이렇게 어렵게 글을 적어 봅니다. 내 하나 밖에 없는 외아들 고등학교 때 남편을 잃고 혼자 몸으로 대학 보내고 집 장만해서 장가를 보냈죠. 아들 늘 효도한번 받아보자 싶은 욕심에 아들놈 내외를 끼고 살고 있습니다. 집 장만 때 해 줄 형편이 안돼서 내 명의로 있던 집을 아들명의로 바꿔 놓고는 함께 살고 있지요. 남편 먼저 세상 떠난 후 아들 대학까지 공부 가르치며... 안 해본 일이 없이 고생을 해서인지 몸이 성한 데가 없어도 어쩔지 아들 내외한테는 쉽게 어디 아프단 말하기가 왜 그렇게 눈치가 보이는지... 어디 식당일이라도 다니고 싶어도 다리가 아파서 서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 아들한테 집 내 된 것 같은 생각까지 듭니다. 며느리가 용돈을 처음엔 꼬박 잘 챙겨 주더니 이젠 전 다리가 아파서 병원을 다니면서부터는 제 병원비 탓인지 용돈도 뜸해 지 더러 구우.

그래도 이따금씩 아들 녀석이 지용돈 쪼개서 꼬깃꼬깃 주는 그 만 원짜리 서너 장에 내가 아들 녀석 하나를 잘 키워주지 하며 스스로를 달래며 살았지요. 그런데 이따금씩 만나는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밥 한 끼 사 줘보지 못하고 언어만 먹는 게 너무 미안해서 용돈을 조금씩 모았는데 간혹 며느리한테 미안해서 병원비 달라고 소릴 못할 때마다 그 모이돈 용돈 다 들어 쓰고 또 빈털터리가 되더라 구요. 그래서 정말 친구들한테 말하고 밥 한번 사야겠다 생각에 아들 녀석 퇴근 길목을 지키고 서 있다가 '해야 용돈 좀 나오. 얼마 친구들한테 매번 밥 얻어먹기 미안해서 조만간 밥 한 끼 꼭 좀 사야 안 되겠나?' 어렵게 말을 꺼냈더니 아들 녀석 하는 말이 '엄마, 집사람한테 얘기할게요.' 그러곤 들어가지 뭐예요. 내가 괜히 말을 꺼냈나 싶기도 하고 며느리 눈치 볼 일이 또 까마득 하더라구요. 일주일일 넘도록 며느리가 아무 말이 없길래 '아가야 내 용돈 좀 나오. 친구들한테 밥 한 끼 사게.' 며느리 아무

표정 없이 4만원을 내밀더라고요. 4만원 가지고는 15명이나 되는 친구들한테 5천원짜리 국밥 한 그릇도 못 먹이겠다 싶어서 다음 날 또 며느리에게 달라고 했더니 2만원을 챙겨 주더라고요. 그렇게 세 차례나 용돈 이야기 꺼내서 받은 돈이 10만원이 채 안 되질래 내가 자식 놈들 살기 어려운데 뭘 자꾸 바라나 싶어 나 자신을 나무라며 그 돈을 들고 며느리 방으로 가서 화장대 사람에 돈을 넣어 두었지요. 그런데 그 서랍 속에 며느리 가계부가 있더라고요. 전 그냥 우리 며느리가 알뜰살뜰 가계부도 다 쓰는구나 싶은 생각에 그것을 열어 읽어 나가기 시작 했는데, 9월14일 웬수 40000원, 9월 15일 웬수 20000원, 9월 17일 웬수 20000원... 그 순간 하늘이 노랗고 숨이 탁 막혀서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남편 생각해, 아니 인생 헛살았구나 싶은 생각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나간 사람 며느리가 가계부에 올 얼마 10만원, 늙은 X 5만원이라며 가계부에 적혀 있더라고 기가 막힌다며, 세상이 그래~' 하는 것이었다. 얼마 했더니 2만원이잖아. 정말 사실이었다. 그렇다고 모두가 불효자는 아니다. 그렇지만 자식에게 노후를 기대하는 건 무리일 수 밖에 없다. 젊었을 때는 어울리는 친구도 많고 주머니 사정도 여유가 조금이라도 되니 친구, 친지들을 만나는 기회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나이 들면 경제력을 상실하고, 육체적으로도 점점 병들어 가고, 더 나아가 들면 친구들이 하나, 둘 떠나가고, 손주 녀석들 용돈이나 자주 줘야 할아버지, 할머니를 따르니...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겨운데 연금 들 돈이 어디 있나 하지만, 세월은 화살과 같아 바로 눈앞의 일로 바뀔 것이다.



이미정 코인스포츠허업소장 010-3023-0065

### 사제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 억울한 세금!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

매사모든 일을 원칙대로 처리하는 나 원칙씨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왔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세무서 직원들이 작년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누락된 자료가 있다고 확인을 하고 돌아간 후, 500만원을 추가로 고지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결과파견지시'를 보내왔다. 나 원칙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불복청구를 하려고 한다.

#### 불복청구는 어떻게 하나?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여 불복을 청구함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다.

- ◆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세금과 관련된 모든 고충을 납세자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이를 위해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설치되어 있다.
- ◆ 행정제 의한 권리구제 제도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모든 세금과 관련된 애로 및 불만사항에 대하여 고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고충청구 대상이다.  
-세금구제 절차를 알지 못하여 불복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입증자료를 내지 못하여 세금을 물게 된 경우  
-실제로는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갖고 3년 이상 소유한 후 팔았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공부상 기재 내용과 같지 아

- 내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사실상 자신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자금을 서류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채납세액에 비하여 너무 많은 재산을 압류하였거나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사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  
-세무조사과정에서 과도한 자료요구 등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애로·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등  
고충청구는 형식이 제한이 없으며, 납세자의 고충이 접수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끝까지 책임지고 성의껏 처리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국세와 관련된 애로사항이나 고충이 있으면 가까운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상담해 보는 것이 좋다.  
집이나 사업장에서 일반 유선전화로 1577-0070을 누르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연결되어 친절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 과세쟁점전문위원회제도  
세무조사 및 자료처리과정 등에서 잘못된 사실관대로 인한 부실과세의 소지를 사전 차단하고, 정정이 되는 사실관계에 대해 납세자와의 이견을 조기 해소하여 과세불복을 높이기 위해 '쟁점사실판단사항'에 대한 심의성 있는 자문을 제공하는 '과세쟁점전문위원회'가 전국 지방청과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및 자료처리과정 등에서 조사공무원의 사실판단 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에는 지방청 또는 세무서의 과세쟁점전문위원회에 자문 신청을 할 수 있다.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재산세과 (031-870-4482 ~ 4489)

### 산업안전사고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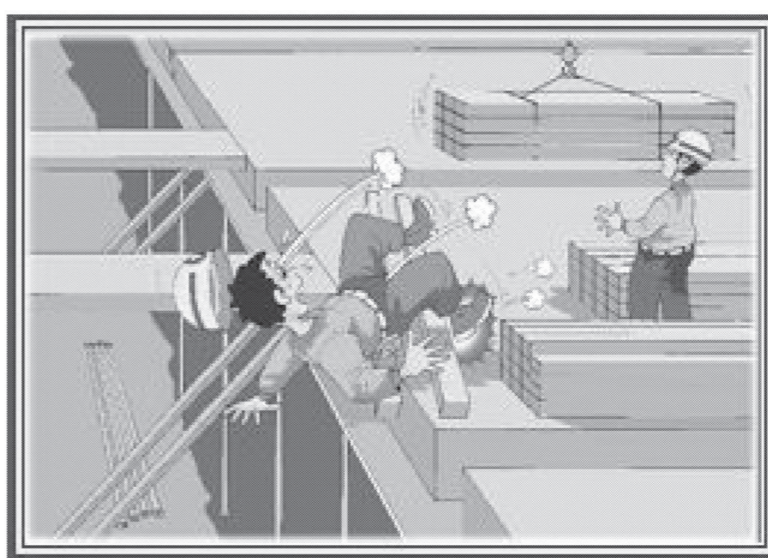
#### 옥상층 바닥 거푸집 위에서 자재를 받던 중 추락

#### ▶재해발생 개요

• 2004년 7월 0일 0시경 OO초등학교신축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인 피재자가 가조립된 상태의 옥상층바닥 슬라브거푸집상에서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자재 묶음을 받던 중 피재자측으로 내려오는 자재를 피하려다 각재에 발이걸려 넘어져 높이 3.3m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재해발생원인

가. 건물바닥 Slab 거푸집작업시 추락방지조치 미 실시  
• 3.3m 높이의 추락위험이 매우 높은 건물물 바닥 Slab거푸집의 단부 개구부에는 근로자가 유호하게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나. 안전대 미지급 및 미착용  
• 사고당시 피재자는 안전모는 착용하였으나 안전대는 미지급 및 미착용



####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건물바닥 Slab 거푸집작업시 추락 방지조치 철저 추락위험이 매우 높은 건물물 바닥Slab 거푸집의 단부 개구부에서의 작업시에는 근로자가 안전대를 걸고 작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확보토록 함.

나.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철저  
○높이 2m 이상 추락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시에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안전대를 지급 및 착용토록 함.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26-6091)

### 국민연금 Q&A

#### 개정법의 소득대체율은 개정전 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

Q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 인내를 받았습니까. 개정법에 의해 소득대체율이 낮아졌는데, 과거 가입기간까지 소급하여 적용되는지? 계속 가입시 손해보는 것은 아닌지?

A 종전법의 연금급여 구조는 납부한 보험료의 2배 이상을 받도록 후하게 설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저출산 등으로 인한 고령화 심화로 후세대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납부한 보험료에 맞는 적절한 연금을 지급하도록 급변에 개정된 것입니다.  
- 60%를 지급하던 급여수준을 2008년도에는 50%로, 이후 매년 0.5%씩 낮추어 2028년에 40%까지 인하  
그러나, 개정법의 소득대체율은 개정전 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 이미 가입한 기간에 대한 급여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안정화 등 제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소득대체율이 낮아졌으나, 여전히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서는 많은 연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니, 노후에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되도록 취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시지 031-544-8700